



즉시 배포용: 2022년 6월 30일

KATHY HOCHUL 주지사

**웨스트 버지니아 대 환경보호청 사건 대법원 판결에 대한 KATHY HOCHUL 주지사
성명서**

"슈퍼스톰 샌디(Superstorm Sandy)에서 허리케인 아이다(Hurricane Ida)에 이르기까지 뉴욕 주민들은 기후 위기의 영향이 이미 발생하고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탄소 감축을 위한 노력은 물론, 청정 에너지 경제 건설을 위해 노력에서 허비할 수 있는 시간은 없습니다.

실수를 저질러서는 안 됩니다. 오늘 대법원(Supreme Court)의 결정은 기후 변화 대응의 커다란 퇴행입니다. 환경 보호에 대한 환경보호청(Environmental Protection Agency, EPA)의 역량을 제한함으로써 대법원은 우리의 기후 변화 대응의 가장 중요한 수단 하나를 앗아갔습니다. 이는 세 가지의 즉각적인 우선 과제가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EPA는 반드시 가장 강력한 배출 관련 규정을 제정하고, 주정부는 반드시 기후 노력을 두 배로 강화해야 하며, 의회는 반드시 올해 우리가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시행할 수 있는 기후 법안을 통과해야 합니다.

뉴욕은 다시 한번 어려운 역할을 수행할 것입니다. 대법원의 기본 보호 박탈에 맞서는 것입니다. 그러나 언제나처럼 뉴욕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기후 위기 대응을 위한 선도적 역할을 강화하고 이웃 주정부와 협동 노력을 강화하며 주 전역에서 청정 에너지 프로젝트를 시행하고 많은 뉴욕 주민의 건강을 해치는 오염 물질을 줄일 것입니다. 이번 판결에 따라, 우리의 노력이 그 어느 때보다 시급해졌습니다."

###

다음 웹 사이트에 더 많은 뉴스가 있습니다: www.governor.ny.gov
뉴욕주 | Executive Chamber | press.office@exec.ny.gov | 518.474.8418